

오월 주먹밥 정신 어디 가고...5월 공법단체 '폭력 일룩'

부상자회·공로자회 회원간 폭력사태 발생...잇단 비방전도 지역사회 "내부 갈등 접고 공법단체 위상 걸맞은 활동해야"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내용이 회원간 폭력사태로 번지는 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5·18 공법단체가 오월 정신 계승 등 공법단체 위상에 걸맞은 활동은 차치하고 불쌍 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5·18부상자회 회원 A(63)씨와 5·18 공로자회 간부 B(65)씨를 지난 9일 오전 9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공로자회 사무실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5·18부상자회·공로자회 회원 등 2명과 함께 B씨를 밀치고 발길질을 해 십자인대를 파열시

키고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A씨를 밀쳐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다른 회원 10여명과 함께 5·18공로자회 사무실에 진입하려다가 이를 말리려던 B씨와 몸싸움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실에서는 5·18공로자회 간부들이 정성국 5·18공로자회장을 만나 "회장에 대한 5년 직무정지가 가결됐으므로 사무실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었다.

경찰 측은 아직 피해자·가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식 입건된 사람은 없으며, 출석 조사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에 이어 정회장까지 이사회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데 이어 회원들 간 극한 충돌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갈수록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 회장은 5·18부상자회 회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정월성 역사공원 설립 반대 신문광고를 내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 이유로 지난달부터 5년 동안 자격 정지됐다. 이에 황 회장은 직무정지를 가결한 임시이사회회의 처분이 부당하며 법원에 '징계처분 및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정 회장 또한 지난 7일 임시이사회 의결로 5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 회장은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징계안을 통과시켰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맞서고 있다.

두 단체의 내부 단체 채팅방에서도 회원들 간 비

방전이 잇따르고 있다.

황 회장은 지난 12일 채팅방에 "일부 회원이 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공로자회장과 부상자회장을 자격 정지시키고 공법단체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공지문을 게시했다. 황 회장은 지난 8일에도 "권한 없는 비선 실제 부상자회원이 공금을 낭비하고 횡령해 5·18부상자회에 끼친 죄상을 나열한다"며 부상자회원들의 피소 사실을 나열한 공지문을 올렸다.

반면 다른 5·18부상자회 회원들은 채팅방에 "황 회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최근 부상자회에서 징계를 받은 자들이 사조직을 만들고 황 회장의 행동대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등 내용의 공지문을 게시하며 맞불을 냈다.

정 회장 또한 지난 5일 채팅방과 블로그 등지에 '외부인과 결탁한 내부 세력이 5월 단체를 사유화하고 부패·횡령·농단을 일삼고 있다'고 공지했다.

5·18 관계자들은 5·18 헌법전문 수록 등 오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법단체들이 내분 때문에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지현 5·18부상자동지회 총대회장은 "오월 주먹밥 공법단체 정신을 살려 하나로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 갈라서기만 반복하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지금이라도 갈등을 멈추고 화합하는 공법단체로 거듭나지 않으면 5·18의 역사에 수지와 부끄러운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내부 갈등이 물리적 양상까지 번진 것은 공법단체로서 면목이 안 서는 일"이라며 "회장의 자격 정지를 비롯한 공법단체 내 사안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유공자들도 자제력을 갖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樂樂樂...낙엽 줍기 13일 오전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교정으로 산책 나선 어린이들이 낙엽을 주우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청소년 10명 중 3명 "5·18 잘 몰라요"

'학교서 배운적 없다' 광주·전라 3%...영남권 31.3%

5·18기념재단 전국 1000명 조사

전국 청소년 10명 중 3명은 '5·18민주화운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5·18기념재단은 '2023년도 청소년 5·18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1000명의 학생을 성별·학교급별·지역별로 나눠 우편 조사를 진행했다.

"학교 수업을 통해 5·18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라는 질문에 '이해했다'는 응답은 71.2%였다. 응답자 중 20.4%는 '보통', 4.0%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국 7개 권역 중 광주·전라권역이 81.3%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권역이 68.7%로 가장 낮았다.

'5·18에 대해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4.5%가 '배운 적

없다'고 답했다. 광주·전라권역에서는 '배운 적 없다'는 응답자 비율이 3%에 그쳤으나,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는 31.3%까지 치솟았다.

'수업시간 외에 5·18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인 57.4%에 머물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알고 있다는 청소년은 25.2%에 불과했으며, '모른다'는 응답은 60.0%에 달했다. 국립 5·18민주묘지에 대해서도 48.8%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24.6%는 '모른다'고 답했다.

재단 관계자는 "청소년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영상 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보급해 5·18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접근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며 "2023 청소년인식조사를 참고해 청소년 대상 오월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5·18이 세계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전남 상습 음주운전차량 8대 압수

광주·전남에서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근절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 동안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8대가 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7월부터 10월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등을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영장발부로 3대 임의제출로 5대 등 총 8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총 162대가 압수됐다.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물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친 뒤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 기간 광주에서는 2건의 압수가 진행됐지만 1건은 영장이 기각돼 압수되지 못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8월 광주시 서구에서 음주를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에 정지중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옆에서 있던 차량에 부딪혔다. 경찰은 운전자의 임의제출로 인해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반면 지난해 8월 한달동안 음주단속에 수차례 걸린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은 차량압수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비례원칙에 위반한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해 차량이 압수되지 않았다.

전남에서는 담양·순천·화순·여수·장흥·보성에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 담양에서는 지난 7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차량을 충격한 음주운전차량이 압수됐다. 순천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상가유리문을 충격한 음주운전자와,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진 운전자소유의 차량을 압수했다.

지난 9월 여수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의 차량도 압수됐고, 보성에서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이후 또 무면허로 주차된 차량을 부딪히고 도주한 음주운전자의 차량도 압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까지 압수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해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서도 아동·청소년 독감 확산

광주에서도 이달 들어 인플루엔자(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집중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44번째 주인 지난 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비율은 30.0명을 기록했다. 의사환자 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 수다. 10월 첫째 주 9.4명이었지만 11월 첫째 주 30명대로, 전주대비 170% 증가했다. 이는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인

6.5명의 4.6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7~12세 95.2명, 13~18세 66.9명으로 초·중·고교생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1시간 가까이 대기해야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시는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지난 9월 20일부터 생후 6개월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50~64세 장애인·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이호동 글 | 박소영 그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